

- 주요 뉴스: 9월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개선. 소비자기대물가도 하락
 - 페덱스 주가, 1분기 잠정실적이 예상을 하회하며 21.39% 폭락
 - 라가르드 ECB 총재,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
 - 서머스 前 미 재무장관, 연준이 정책금리를 4.5%까지 인상시킬 것으로 전망

■ 국제금융시장: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위험선호 강화

미 주가 하락[-0.7%], 달러화 보험[0.0%], 금리 보험[0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9월 FOMC 경계감으로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도 통화정책 긴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미 소비자 기대물가 하락에 장중 상승폭 반납
유로화가치는 0.2% 상승, 엔화는 0.4% 상승
- 금리: 미 국채 금리는 혼조세. 대부분이 소폭 등락했으나 30년물은 큰 폭 오름세
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1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84.9원, -12.6원) 0.9% 하락, 한국 CDS 상승

		9/16일	9/15일	전일대비			9/16일	9/1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873.3	3,901.4	-0.72%	국채 금리 10y	미국	3.45%	3.45%	0bp
	유럽	408.24	414.78	-1.58%		독일	1.76%	1.77%	-1bp
	중국	3,126.4	3,199.9	-2.30%	CDS 5y	한국	33bp	32bp	1bp
	일본	27,568	27,876	-1.11%		중국	75bp	72bp	3bp
	한국	2,382.8	2,401.8	-0.79%	위험 지표	EMBI+	-	423	-
환율	달러지수	109.76	109.74	0.02%		VIX	26.30	26.27	0.11%
	유로화	1.0016	1.0001	0.15%		WTI유	87.78	85.10	3.15%
	엔화	142.92	143.52	0.42%	원자재	구리	356.1	352.4	1.06%
	위안화	6.9870	6.9946	0.11%		금	1,675.1	1,665.1	0.60%
	원화	1.1420	1.1467	-0.4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9월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(잠정치) 개선, 소비자기대물가도 하락

- 9월 소비심리지수가 59.5로 전월대비 1.3pt 상승한 가운데, 미국 소비자들의 현재상황 평가지수는 58.9로 전월대비 0.3pt 상승. 또한 6개월 후를 전망하는 미래기대지수는 59.9로 전월대비 1.9pt 상승
-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.6%로 전월대비 0.2pt 하락하며 '21.9월 이후 최저 수준. 5~10년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2.8%로 전월대비 0.1pt 하락하며 '21.7월 이후 최저
- 미시건대는 소비자들의 1년 경제 전망이 올여름 최저 수준에서 점차 회복하고 있지만, 장기전망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. 또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렸다고 분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페덱스 주가, 1분기 잠정실적이 예상을 하회하며 21.39% 폭락

-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물류업체 페덱스의 1분기 조정 EPS가 \$3.44로 시장 예상치(\$5.10)를 크게 하회한 가운데, 불안정한 영업환경을 이유로 연간 실적전망 발표를 철회하면서 주가가 큰 폭 하락

■ 래리 서머스 前 미 재무장관, 연준이 정책금리를 4.5%까지 인상시킬 것으로 전망

- 연준의 금리인상이 4.5%를 웃돌 가능성이 높은가운데, 5%까지 인상되더라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평가.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어느정도 상존한다고 발표
- 연준이 정책결정을 과감하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, 인플레이션 대응이 지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치른 역사적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찾아보지 못했다고 주장

■ 러시아 중앙은행, 기준금리 8%에서 7.5%로 50bp 인하

- 성명서에 향후 추가 금리인하와 관련한 언급은 생략하고,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여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

■ 라가르드 ECB 총재,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

- 높은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2차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절대적으로 피해야하기 때문에, 최근 금리인상이 물가억제에 대한 ECB의 강력한 의지임을 시장에 피력해야한다고 주장

■ 나겔 분데스뱅크 총재, ECB의 금리인상 지속 필요성 주장

-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는 시간이 소요되나 금리인상의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음을 주장하며, 물가 상승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ECB가 회의마다 금리인상을 결정해야할 필요성 언급

■ 올리 렌 ECB 정책위원,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가 임금 상승을 억제 전망

- 인플레이션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으나, 유로존 경기 침체 위험과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이 임금 상승을 제동시킬 것으로 전망. 다만 금년 남은 기간동안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

■ 크레딧스위스, 연준의 터미널레이트 4.25~4.50%로 기존 전망보다 50bp 상향

- 8월 미국 인플레이션이 시장예상을 상회하면서 연준이 더욱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.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내년에도 정책을 완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9/16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(전년동월비): 9.1%, 7월(8.9%), 잠정치(9.1%)
- 중국 8월 산업생산(전년동월비): 4.2%, 7월(3.8%), 예상치(4.0%)
- 중국 8월 소매판매(전년동월비): 5.4%, 7월(2.7%), 예상치(3.4%)
- 중국 1~8월 고정자산투자(전년동월비): 5.8%, 7월(5.7%), 예상치(5.5%)

■ 향후 이벤트

- (9.19일) 일본, 영국, 캐나다 금융시장 휴장. 9월 미국 NAHB 주택가격지수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053, E-mail jchwang@kcif.or.kr